제6강 언어와 존재의 그늘에서 Ⅱ-2

(1,2교시)

* 正名論 : 無形無名 ↔ 正名
→ 도가, 각자가 타고난 재능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. (왕필)

* 동양사상의 특징: 사유의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.(인식론과 존재론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.)
→ 노자 재해석의 의의) 이미 서구화된 우리 사회에서의 동양 사상의 자리매김.

4. 탈형이상학적 휴머니즘의 회복과 전망(여종현)

-근대 주체성의 형이상학에 대한 관점: 서구의 자기실현(인식)/자기표상의 주체(-세계자체가 인간의 주관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존재한다. 내가 보는 것이 세계. □내 머릿속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.□, 칸트 등), 동양의 도덕주체

-유학의 주체성: 天(道)-(人)性-心-思(反省반성), 天人合一의 주체성 형이상학 ↔ 서구의 기술적 자연지배의 주체성 형이상학과 내용상으로 다르나 형식상 동일: 주체성의 형이상학

-주체성 형이상학의 경제/정치 제도적 표현이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 시대 → 고대의 고상한 이성적 인간이 야수적(니체) 경제동물로 변화: 형이상학의 종말은 □철학의 경험과학으로의 전개□ 또는 □철학이 기술화된 과학으로 해소됨□을 의미

-과학적 진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진리로 됨 → 자연의 자연성 상실/인간의 인간성 상실

-대상화된 자연, 은폐된 진리에서 벗어난 진리/자연 자체에로 회귀하는 것, 이것이 곧 인간학주의의 탈피->노자와 하이데거의 탈형이상학적 사유

*하이데거의 전환적 사유
-존재적(ontic)/존재론적(ontological)의 구분
-인간을 통해 드러난 존재: 현존재(Dasein)→기초존재론과 일반존재론의 구분
⇒ 2C 실존주의(세계-내-존재 existanz)

(3교시)

-노자: 인간중심의 天人合一(천인합일)에서 자연중심의 天人合一→無爲/道-퓌시스(physis)

1)『노자』-道可道非常道 : □존재는 존재자적인 것으로써 설명될 수 없다□-하이데거

2) 형이상학에서 논리학은 존재의 한계-실체성에 입각한 존재, 존재는 비존재인 無의 타자

3) 탈형이상학의 無/道는 논리적 공간에 대해 초월적→□無는 존재로 현성(現成)한다□

⇒ 직관적인 논의가 대부분이다.

-존재와 존재자의 관계

1) 道生一(도생일) → 존재가 그 운명에 의해 존재자를 통해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해석(탈형이상학적 구도)

2) 道가 존재라면 無爲는 존재로 현성하는 과정

3) 현존재: 존재와 인간의 공속성, 존재의 진리(역사)가 현성하는 곳(Da), 여기서 德은 도가 보낸 것으로서 존재자의 존재

-휴머니즘의 탈형이상학적 본래 의미 회복: 존재자에게 그의 자유와 진리를 갖게 하는 것

※ 도와 존재가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. 다만 이러한 해석의 배경으로 될 수 있는 동양 사상의 전통(사상사, 문화사)적인 배경에 대한 세세한 서술이 다 잘 엮여지기를 기대하고 싶다.

5. 무의 감응(정세근)

-동서의 無: 노자의 무는 유가 나오는 근거이지만 하이데거의 無는 존재에 속한다.

-동양적 有의 여유성: 有朋自遠方來(『논어』), □집에 누구 있소?□(有人在家平?)->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세계의 관계망 속에 있음(無의 有化)을 전제, 無를 받아들이는 有의 여유로움

-동양의 무(절대무, 짝없는 무, 언어를 꺼리는 무)는 두텁고 푹신푹신하지만, 서양의 무는 얇고 쉽게 찢어질 듯 약하다.

-□無는 하나의 태도이다. 삶에 대한 자세, 남에 대한 숙고, 그로 말미암는 수많은 배려들이다. 무의 이름은 같으나 속이 다르기 때문에, 서양의 실존주의는 걱정(Sorge) 투성이지만, 이 동양의 무론은 평온하고 염담한 덤덤함이다.□

-무용지용: 惠子謂莊子曰(혜자위장자왈): □子言无用(자언무용).□ 莊子曰: □知无用而始可與言用矣(지무용이시가여언용의).□ 天地非不廣具大地(천지비불광구대지), 人之所用容足耳(인지소용

용족이). 然則厠足而?之致黃泉(연즉측족이점이치황천). 人尙有用乎(인상유용호)?□ 惠子曰: □无用(무용).□ 莊子曰: □然則无用之爲用也亦明矣(연측무용지위용야역명의).□(『莊子』「外物」*厠: 가장자리 **?: 파다. 예)동양화의 여백

-무의 두 가지 힘: 『노자』의 自然(자연성은 무한하지만 자연물은 유한하다-내재적 무한성, 氣와 萬物), 허무의 경지(境界). 유를 붙잡고 추구되는 조화는 폭력(규범)을 동반하지만 무를 붙잡은 것은 오로지 평화의 실천이다, 조화나 理와 같은 질서의 영역 속에 無는 끼어들 곳이 없다.
※ 無의 철학은 가능한 것일까? 無는 존재가 아닌 用의 세계에서 의미가 있다.